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크로스 섹슈얼 스타일에 관한 연구

김 해 진 · 광 태 기*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과정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요 약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성 역할에 대한 개념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단일 차원으로 생각하고 양극의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성차별 교육을 받음으로써 생겨난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남성들은 자신만의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을 표현하고,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요구되어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 패션에서도 남성의류와 여성의류의 구분은 있으나 점점 남성의류의 경계가 없어지는 새로운 패션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성 표현의 자유로움은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는 패션에서 '남성스러운' 혹은 '여성스러운'이라는 틀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개념은 성별의 한계를 극복한 완전한 성의 표현과 남성 안에 내재된 여성성의 표현으로써 크로스 섹슈얼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탄생시켰다. 크로스 섹슈얼(cross sexual)은 남자이면서 여자보다 예쁜 남자, 자신을 가꾸는데 좀 더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면서 여성 못지않게 자신의 스타일을 표출하며 창조적인 왜곡을 유도한다. 그 중에서 패션은 매년 시즌마다 남성복에서 여성성을 강조하는 의상들을 컬렉션을 통해 선보이면서 크로스 섹슈얼 스타일이 반영된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대중화되는 시점에서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크로스 섹슈얼 스타일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의상의 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크로스 섹슈얼 스타일과 그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2009년 이후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그동안 남성복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포멀 아이템들과 강한 남성에 우아함과 세시함을 보여주는 소재,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사용했던 화려한 색상들이 포인트 색상으로 남성의 세련됨을 표현하는 것이 제일 큰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성차이가 없이 각자의 성을 교차하는 패션을 보이고 있다.

주제어: 크로스 섹슈얼, 남성복, 컬렉션, 디자인

I. 서론

과거 전통사회에서 성 역할에 대한 개념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단일 차원으로 생각하고 양극의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어릴 때부터 남자 아이에게는 로봇 장난감, 여자 아이에게는 바비 인형이 손에 쥐어져 자연스럽게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성차별 교육을 받음으로써 생겨난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성해방 및 여성해방 운동 등 현대 사회의 성 역할 변화와 더불어 해체주의적 사상을 통한 남녀 이분법의 해체로 엔드로지너스, 젠더리스, 유니섹스 등 남성성과 여성성이 적절히 조화된 젠더(gender) 개념의 출현으로 성이 다원화되고 있다. 젠더는 한 사회의 규범, 가치관, 성 역할에 대한 그 사회의 태도와 기대, 사회의 고정관념에 의해 학습되어지는 성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브 융(Carl G. Jung)은 남성의 성격과 여성의 성격은 서로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¹⁾ 즉 모든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여성적인 요소가 있으며 꿈속에서 여성의 인물이나 이미지로 인격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적으로 전통적 남성상에서 탈피하여 다채로운 특성의 남성상을 보여주며 남녀의 성 경계를 넘어서 남성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여성성을 외부로 표출하며 변화된 남성상을 보여준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남성들은 자신만의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을 표현하고,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요구되어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남성들은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피부 관리를 받으며, 화장까지 서슴지 않고, 긴 머리에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하기 위해 미용실을 찾고 있다. 또한, 네일샵에서 여성들과 나란히 앉아 손 관리를 받고, 자신

의 외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성형을 하는 등 남성들의 외모 가꾸기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남성들의 적극적인 외모 가꾸기 현상은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의 이상적인 남성상도 바뀌게 되어 권위적이고, 터프한 남성보다는 자상하고 부드러운 남성을 선호하는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즉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남성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이는 과거와 달리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연해지면서 아름다움은 반드시 여성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²⁾

패션에서도 남성의류와 여성의류의 구분은 있으나 점점 남성의류의 경계가 없어지는 새로운 패션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남성들은 성의 경계가 모호한 유니섹스 스타일을 넘어 여성의 패션을 과감하게 즐기면서 표현하고 있다. 성 표현의 자유로움은 자기표현의 수단이 되는 패션에서 ‘남성스러운’ 혹은 ‘여성스러운’이라는 틀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개념은 성별의 한계를 극복한 완전한 성의 표현과 남성 안에 내재된 여성성의 표현으로써 크로스 섹슈얼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탄생시켰다.³⁾

오늘날 변화된 남성성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로 권지은(2003)⁴⁾, 조은주(2005)⁵⁾, 안보은(2005)⁶⁾의 연구 등은 대부분이 메트로 섹슈얼 현상을 다뤘으며, 크로스 섹슈얼 현상을 분석한 김경인(2006)⁷⁾, 이재정(2007)⁸⁾, 한지은, 정성혜(2008)⁹⁾의 연구 등 다수 나타나고 있으나, 남성복 디자인에서의 크로스 섹슈얼 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크로스 섹슈얼(cross sexual)은 여자보다 예쁜 남자로서 자신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여성 못지않게 자신의 스타일을 표출하고, 창조적인 왜곡을 유도한다. 크로스 섹슈얼이라는 새로운 남

성상의 출현은 외모도 여성스럽기 때문에 말투와 성격까지 여성스러울 것 같다는 여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 광고 등 대중매체에서 크로스 섹슈얼 경향을 보이는 남자 연예인들이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일반 남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외모를 예쁘게 꾸미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성패션에서는 매년 시즌마다 남성복에서 여성성을 강조하는 의상들을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크로스 섹슈얼 스타일이 반영된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대중화되는 시점에서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크로스 섹슈얼 스타일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먼저 이론적 배경을 통해 크로스 섹슈얼의 개념과 크로스 섹슈얼의 확산 요인을 알아보고, 크로스 섹슈얼의 패션 특징을 과거의 컬렉션과 2009년 이후 남성복에 나타난 컬렉션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국내의 문헌 및 선행 연구 자료의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추출된 사진자료와 남성복의 양성화, 다원화 현상과 크로스 섹슈얼 현상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남성복 컬렉션 이미지로 한정하였다. 이 중 최종적으로 총 148개의 이미지를 선정하여 디자인 요소별로 구분하여 정량분석법을 이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크로스 섹슈얼의 개념

크로스 섹슈얼의 사전적 의미는 2006년부터 급부상한 트렌드로 외모 가꾸기 차원을 넘어서 여성들의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화장 등을 하나의 패션코드로 생각하여 치장을 즐기는 남성으로써, 패션 이외에 행동이나 말투 등은 남성답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여자 같은 남자와는 확실히 구별된다.¹⁰⁾ 또한 남성 자신만의 여성스러운 취향을 숨기지 않는다는 면은 메트로 섹슈얼과 비슷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유행처럼 따라가기 보다는 좀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서 표현한다는 것이 크로스 섹슈얼의 특징이다. 이는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에 대한 양성화 경향으로 단순히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넘어선 새로운 패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에 개봉되어 큰 화제를 모은 영화 『왕의 남자』에서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의 모습으로 광대역할을 연기했던 이준기<그림 1>의 이미지가 바로 크로스 섹슈얼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가 있겠다. 이준기의 크로스 섹슈얼의 이미지가 인기를 얻으면서 그 이후에도 많은 스타들이 예쁜 남자의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동방신기의 믹키유천<그림 2>, 슈퍼주니어의 김희철<그림 3>과 2009년에 방영된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꽃미남의 열풍을 더욱 더 부각시킨 SS501의 김현중<그림 4> 등 모두 외모가 여성스러운 뿐만 아니라, 여성적인 코드로 외모를 치장한다. 이와 같은 미디어 스타들의 여성화 현상은 일반인들에게도 전이되어, 미용실에서 대다수의 남성들이 스타일링 기구로 부드럽게 세팅한 긴 머리 스타일을 원하고, 남성전용 색조 화장품을 즐겨 사용하며, 엉덩이를 위로 올리는 남성용 거들인 드로즈를 구입하여 착용하는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다.¹¹⁾

남성의 여성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사회의 변화가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남자들은 언제나 성적 관심의 ‘대상’이 아닌 ‘주체’였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남성들 역시 섹슈얼리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성에게 적용되었던 섹슈얼리티의 잣대가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¹²⁾ 이와 같은 변화로 과거에는 남자들에게 ‘예쁘게 생겼다’라는 말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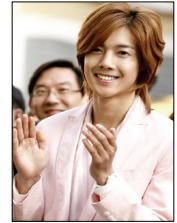
<그림 1> 이준기
(출처: <http://cafe.naver.com/digitaldraw/938>)



<그림 2> 박기유천
(출처: <http://blog.naver.com/gpwl9602/80067936258>)



<그림 3> 김희철
(출처: <http://cafe.naver.com/mynico/27703>)



<그림 4> 김현중
(출처: <http://cafe.naver.com/dmreplay/859913>)

지금은 예쁘다는 표현이 반드시 여성에게만 해당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남성을 예쁜 남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유연해졌음을 보여준다. 연세대학교 마광수 교수는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양성애적 기질이 있다. 한용운, 김소월의 시에도 여성성이 발현돼 있다. 그것은 모든 남녀가 모성을 동경하는 기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예쁜 남자’ 열풍은 자연스런 현상이다”¹³⁾고 말했다. 즉 이런 예쁜 남자의 열풍은 바로 크로스섹슈얼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크로스 섹슈얼 현상을 추구하는 남성들은 남녀간의 감정 차별화에 연연하지 않고, 여성적인 색채와 여성적인 디테일이나 액세서리를 과감하게 착용하여 여성복 못지않은 패션 감각으로 남성들의 자유로운 감정과 개성을 추구하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크로스 섹슈얼 남성들은 브랜드의 명성을 따지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내고 어떤 스타일이 아무리 유행한다고 해도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따라하지 않는다.¹⁴⁾ 크로스 섹슈얼 현상은 패션뿐만 아니라 미용 분야로도 확산되어, 브랜드 인지도를 따지기 전에 본인의 피부 타입과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자기만의 화장품을 찾는 등 종전의 남성 소비패턴의 고정관념이 변화되고 있다.¹⁵⁾

이와 같이 변화된 남성스타일은 성의 개념을 초월하여 미적인 취향과 자신만의 개성과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만의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크로스 섹슈얼 트렌드의 확산 요인

1)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오늘날 현대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인터넷의 보급, 다양한 선진 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가치관의 변화, 문화의 다원화와 생활수준 향상 등의 사회현상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신적, 신체 내외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과 동시에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 추구영역의 다양화 등을 원하게 되었다.¹⁶⁾

미래 사회로 나아갈수록 감정 문화를 형성하여 여가생활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는 삶의 질적인 면을 중요시하고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사회적 성공보다는 개인의 안녕을 위한 자기애가 강한 라이프스타일로 엿볼 수 있다.¹⁷⁾ 특히 남성들의 라이프스타일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났고, 스스로가 자신의 스타일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남성들의 경우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여성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져 왔던 패션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보다 더 다양하고 감각적으로 만들었다.

현대의 남성들은 남녀의 성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개성적인 패션을 연출하여 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강한 남성상에 여성의 디자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이용해 부드러운 남성 패션을 연출하기도 한다. 또한, 피부 관

리, 성형, 화장, 헤어스타일 등 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과거 남성들의 권위적이었던 사고와 의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거친 피부와 탈모를 고민하면서도 화장이나 피부 관리를 기피해왔던 남성들은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달라지고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 현상이 보편화됨에 따라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 미백성분이 담긴 제품과 피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컬러 로션을 바르는 등 남성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게 된다.¹⁸⁾ 즉 가치관 변화와 문화의 다원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분위기도 남성의 라이프스타일이 과거와는 달리 폭넓고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 남성미(美)의 변화

과거의 남성상은 19세기의 산업화로 인한 남성 중심 사회의 보수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으며, 남성들은 여성성을 소극적이며 부정적이고 감성적이라고 인식하였고, 남성성을 강하고 단순한 형태로 당시 사회와 문화가 요구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절제력이 강한 남성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여성해방운동과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경제력 또한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지니는 위치와 역할에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남성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어 남성의 모습에도 변화를 불러왔다.¹⁹⁾

최근의 미디어 광고에서 보여 지는 남성상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스타일이 선호되며 이러한 경향은 ‘꽃미남’이라는 신조어의 등장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²⁰⁾ 이와 같이 변화되는 남성상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패션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지는 미용 산업에 관련된 미(美)산업이 남성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많은

화장품업체에서는 스킨과 로션으로 대표되던 남성 화장품에서 추가적으로 남성용 클렌징, 보습팩, 미백기능성 화장품, 주름개선 화장품, 남성용 비비크림 등 많은 종류의 남성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남성들은 외모를 여성스럽게 가꾸는 크로스 섹슈얼의 경향으로 여성처럼 촉촉한 피부를 갖기 위해 남성용 화장품이 아닌 여성용 화장품을 바르는 남자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크로스 스킨 족’이다.²¹⁾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교수는 「여성시대에는 남성도 화장을 한다」라는 책에서 현대 남성들의 변화되는 모습과 그 이유는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며, 그들이 원하는 남성상은 터프함 보다는 부드러움, 강인함보다는 귀엽고 자상함을 갖추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런 남성미의 변화는 남성 컬렉션의 활발한 움직임과 남성전용 액세서리와 화장품, 남성 다이어트 증후군 등에서 크로스 섹슈얼 현상을 볼 수 있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갖고 남성적인 기질은 그대로 지니면서 여성적인 감성적 코드로 자기중심적 성향을 지닌다.²²⁾

3) 대중매체의 영향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탈산업 사회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의복의 형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²³⁾ 개인의 정체성뿐 아니라 집단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인 의복은 문화적 정체성과의 연결을 통해 그 사회의 유행으로 재구성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광고, 영화, TV 등 대중매체에 출현하는 연예인들의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 패션 등에 대한 시청자의 모방 행위가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의 예쁜 외모까지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일반 남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효과가 나타나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예전의 거부장적인 시대적 사고를 벗어나 위엄 있



<그림 5> 김범, 잇츠스킨
(출처: <http://blog.naver.com/neat24/30050439567>)



<그림 6> FT아일랜드, 바비팻
(출처: <http://blog.naver.com/rhacd1234/101807660>)



<그림 7> 이승기, 지펠
(출처: <http://cafe.naver.com/zipelssak/3087>)



<그림 8> 빅뱅, 베스킨라빈스
(출처: <http://cafe.naver.com/musicstar2/4546231>)

고 거친 남성보다는 부드럽고 자상한 꽃미남이라는 크로스 섹슈얼 트렌드를 대중화시켰다.

크로스 섹슈얼 트렌드의 대중화와 함께 광고계에서는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으로 크로스 섹슈얼 남성들이 모델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화장품 광고모델은 최고의 여자스타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었다. 초기에는 이러한 현상에 소비자센터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남자용인지 여자용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남성모델이 등장한 화장품광고가 방영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시중에서 제품이 품절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²⁴⁾ 최근 이러한 현상은 <그림 5>, <그림 6>처럼 드라마에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주연배우들을 메인모델로 등장시켰으며, 이것은 ‘크로스 섹슈얼’ 붐을 타고 예전보다 여성용 화장품에 남성모델이 등장하는 일이 더 빈번해졌다. 또한 그들의 외모만을 강조한 화장품광고가 아니라 가전제품, 요리, 아이스크림 광고 등 외모에서 보일 수 있는 자상함과 부드러운 그들의 느낌을 살린 광고가 나타나는 현상이 대중화되었다 <그림 7>, <그림 8>.

광고업계관계자들은 이 같은 크로스 섹슈얼 열풍에 대해 최근 연예계에는 여자보다 예쁜 ‘꽃미남’ 열풍이 불면서 여성 혹은 남성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화장품, 의류 광고에 파괴바람이 불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 같은 현상은 상대성에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연예인들의 모델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²⁵⁾

3. 크로스 섹슈얼 패션 스타일의 특징

크로스 섹슈얼 패션 스타일은 전통적이며 권위적인 남성스타일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남성성과 여성성의 합일체를 보여주며 이성의 특징이 서로 교차된 의상, 메이크업, 액세서리, 헤어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유행처럼 따라가기 보다는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에 맞게 자유롭고, 편안한 형태의 의상을 추구함으로써,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남성 이미지를 나타내는 실루엣은 넓은 어깨와 가슴을 강조하는 역삼각형 Y실루엣이 나타나며, 여성은 가슴, 허리, 엉덩이를 강조하는 아워글래스 X실루엣이 여성적 이미지로 보이고 있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명확한 허리 라인은 여성의 우아함을 표현하여 의복의 에로티시즘을 표출하는 성감대 중의 하나이다.²⁶⁾ 따라서 남성복에서 허리라인을 강조하는 것은 남성에게 잘 표현되지 않았던 섹슈얼리즘을 강조하는 동시에 여성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크로스 섹슈얼 패션 스타일의 디자인 경향은 전체적으로 인체에 밀착되어 슬림한 외곽선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비해 좁아진 어깨선의 자켓과 스판 소재의 상의, 피트 되는 팬츠의 조합은 모던하고 섬세한 이미지와 함께 신체곡선의 섹시함을 나타낸다. 또한 부드러운 어깨선의 니트 소재의 상의와 스트레이트형의 팬츠 조합은 남성의 강인한 이미지보다는 부드럽고 경쾌한 이미지를 전달한다.²⁷⁾

<그림 9>는 좁아진 어깨와 전체적으로 몸에 피트 되는 상의와 하의 실루엣을 취하고 있는데, 남성 패션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양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은 여성복에서만 볼 수 있었던 프린세스 라인이 테일러드 슈트에 적용이 되어 진동선이 올라가고 허리라인을 살려줌으로써, 남성의 섹시한 면을 보여주는 실루엣으로 역시 양성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슬림하고 신체라인을 살려주는 실루엣이 있는 반면에 <그림 11>에서는 원피스 형태의 복식으로 신체의 라인을 살려주는 실루엣은 아니지만 부드러운 니트 소재를 사용하여 움직임 때 마다 신체라인을 보여주어 기존의 남성이미지를 깬 양성적 이미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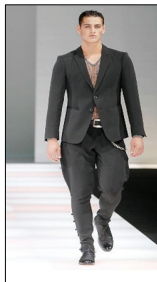
크로스 섹슈얼을 추구하는 남성들은 한 가지 이미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니트, 점퍼, 코트, 스커트 등 다양한 아이템의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성복에 나타난 스커트는 1966년 이후에 종종 등장을 하였지만, 현대에는 1990년대 이후 컬렉션에서 스커트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고유의 아이템인 스커트를 남성복에 도입하여 크로스 섹슈얼 트렌드를 부각시키며 다양한 아이템들을 색다르게 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지금까지 남녀를 가장 확실하게 구분지었던 아이템인 스커트와 팬츠가 더 이상 성의 구분 수단이 아님을 뜻한다.

기존에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던 레이스, 러플, 프릴장식 등이 남성복 디테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남성패션에 과감한 변화를 주었으며, 이것은 남성들의 전통적 성적 의미를 변화시켰다. 또한 소재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성적 이미지로 인식된 가볍고, 부드럽고, 얇고,



<그림 9>
디올 옴므(Dior homme) 2007 S/S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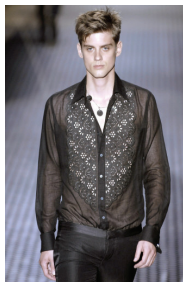
<그림 10>
엠펙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2006 S/S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1>
김서룡 2007 S/S
(출처: <http://www.seoulfashionweek.org>)



<그림 12>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2007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3>
구찌(Gucci) 2007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4>
비비안 웨스트우드 2008 S/S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바삭거리고, 비치는 직물들이 남성복식에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이 선보였는데, 슈트의 곡선적인 실루엣을 살리기 위한 실크 소재가 각광을 받고 있다.²⁸⁾ <그림 13>은 남성 몸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소재인 비치는 천을 이용하여 셔츠를 디자인하였다. <그림 14>에서는 남성복식에 평범하게 나타났던 V넥 셔츠나 폴로셔츠, 폴로버 형이 아니라 성글게 짠 특이한 니트 재질로 몸이 훤히 비쳐 보이게 해서 몸에 흘러내리는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크로스 섹슈얼 남성복 패션은 기존의 남성을 대표하던 무채색에서 벗어나 화려한 색상의 변화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색상에서 보이는 남성의 여성화 경향은 현재 변화하는 남성들의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이다.²⁹⁾

전통적인 남성복에서는 검정, 회색, 갈색, 감색 등의 보수적 이미지의 색채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최근 남성복에서는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순색을 사용하지 않고, 독특한 색 기미가 있는 혼색을 많이 사용하며, 화려한 원색 계열이나 파스텔 톤의 색상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무채색 계열에 화려한 원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 기존 색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남성패션에도 다양한 색상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유명 컬렉션에서 핑크, 오렌지, 퍼플, 레드, 그린, 옐로우, 블루 등의 화려한 색상과 밝은 톤의 색상이 넥타이, 셔츠, 스웨터 등의 다양한 아이템에서 사용되어, 남성복에서의 여성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³⁰⁾ 남성 패션 아이템에 있어서 화려한 색상과 밝은 톤의 증가는 남·여 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크로스 섹슈얼 패션의 특징으로 신비롭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반영한다.

III.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크로스섹슈얼 스타일 디자인 분석

현대 남성복 트렌드에서는 남성과 여성, 어느 한 성이 우세하기보다는 각자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드러내면서 상대의 성을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 즉 과거와 미래, 치밀함과 이성, 차가움과 따뜻함, 남성성과 여성성의 세련된 조합을 통한 미래적 크로스 섹슈얼 스타일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 요소란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원으로 선, 색채, 재질이며³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이후 남성복 컬렉션을 디자인 분석 요소로서 아이템, 실루엣, 디테일, 소재, 색상으로 분류하여 크로스 섹슈얼의 스타일을 살펴보았다.

1. 아이템

2009년 이후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남성의 전형적인 아이템들인 재킷, 코트, 점퍼, 셔츠, 팬츠의 활용 빈도가 높았는데, 재킷과 셔츠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소재와 색상으로 이중적인 느낌의 레이어링 효과를 주는 아이템들이 나타났다. <그림 15>처럼 소매부위를 부풀게 하여 여성적인 볼륨감이 느껴지는 니트 가디건과 스웨터와 몸에 피트 되거나 남자의 상의에 딱 맞게 떨어지는 길이의 티셔츠가 아니라 약간 넉넉하면서 자연스럽게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티셔츠가 여성의 원피스를 연상케 하며, 남성의 여성성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던 아이템인 스커트도 이번 컬렉션에서 어김없이 보이고 있다.

이번 시즌에 보다 새롭게 보이는 것은 상황에 따라 연출이 가능한 포멀 아이템들이다. 슈트나 재킷, 코트 위에 덧입어 소재나 컬러를 다르게 하여 플랫폼하면서도 여성적 웨임을 띄고 있는 크롭트



<그림 15>
질 샌더(Jil Sander) 2009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6>
라프 시몬스(Raf Simons) 2009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7>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2010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재킷을 비롯하여<그림 16>, 니트로 짜인 남성용 볼레로와 코트위에 더해져서 여성적인 면을 강하게 드러내는 남성용 코르셋<그림 17> 등 중성적인 뉘앙스와 더불어 이중적 요소를 우아하면서도 완벽하게 결합한 아이템들이 돋보인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전형적인 남성 아이템을 기본으로 하여 남성과 여성의 이중적인 요소를 표현한 다양한 아이템들을 색다르게 조합하여 여성복 못지않은 패션 감각으로 믹스&매치의 스타일링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2. 실루엣

기본적으로 2009년 이후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그림 18>처럼 크로스 섹슈얼을 대표하는 몸에 피트되는 I형의 실루엣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는 단순히 인체에 밀착되어 슬림한 외곽선의 라

인을 형성하기보다는 인체의 윤곽을 따라서 여성에게만 강조되던 신체부위를 남성라인에서도 더욱 부각시키면서 여성적 라인을 표현하는 실루엣도 보이고 있다. <그림 19>는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실루엣으로써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와 섹슈얼한 곡선 라인의 숄더와 힙은 마치 선을 따라 조각을 한 것 같은 효과를 가져가며 입은 사람 자체를 매혹적으로 보이게 한다.

대체적으로 몸에 피트되는 슬림한 라인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상, 하의가 비슷한 폭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라인을 형성하는 H형 실루엣도 컬렉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림 20>처럼 기존의 H형과 달리 적당한 여유를 지닌 재킷과 상의보다는 폭이 넓고, 편안하게 흘러내리는 스트레이트형의 와이드 팬츠를 주요 아이템으로 사용함으로써 남성의 강인한 이미지보다는 여성의 부드럽고 경쾌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18>
구찌 2009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9>
질 샌더 2009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0>
지안프랑코 페레(Gianfranco Ferré) 2010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2009년 이후 남성복 컬렉션의 실루엣에서는 남성의 바디라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남성의 젊고 건강한 육체를 과장 없이 복식의 실루엣으로 표현하여 남성적 이미지를 여성적인 재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관능적인 모습의 양성적·중성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3. 디테일

디테일에서는 남성의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레이스, 러플, 프릴, 비즈, 퍼프, 자수, 코사주 장식 등이 남성복 컬렉션에서 보이고 있다. 특히, 섬세하고 우아한 디테일은 <그림 21>처럼 켈트나 리본 디테일, 셔링을 잡은 루즈한 셔츠 등으로 로맨틱 무드를 보여준다.

2009년 이후의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장식적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림 22>처럼 원단 위에 꽃모양의 자수를 새겨 여성적인 우아함을 부각시키는 자수 장식과 금속, 비즈 장식을 <그림 23>처럼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인 포인트 장식으로 표현하였는데, 금속의 메탈 장식 같은 경우는 대개 거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보다 장식적이면서도 섬세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셔츠의 단추 여밈 부분에 레이스 장식과 허리 부분에 손으로 짠 레이스로 포인트를 주는 장식, <그림 24>처럼 터틀넥 아이템을 기하학적인

주름을 이용하여 위로 올라갈수록 넓게 퍼지게 하여 크로스 섹슈얼 이미지를 나타내는 디테일들이 2009년 이후 남성복 컬렉션의 특징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한 부분을 강조하여 여성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프릴이나 러플, 코사지 장식 등은 기존의 남성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여성적 디테일의 증가는 크로스 섹슈얼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4. 소재

2009년 이후 남성복 트렌드에서 제시한 남성과 여성의 미학이 교차함은 기존의 소재들 위에 수공예적인 장식을 더해주거나, 견고해 보일 수 있는 수팅 소재들을 킬린더링 가공으로 유연한 핸들링과 은은한 광택을 가미하여 보다 우아하게 연출해주는 것이 소재의 특징이다.

<그림 25>는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의 2009 F/W 컬렉션으로 고급스러운 실크와 벨벳 소재가 중심을 이룬다. 바구니를 짠 듯 한 형태로 된 소재의 재킷과 여성용 가방의 소재와 아웃도어에서 점퍼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키팅소재를 벨벳과 함께 디자인한 재킷은 여성적인 드레시한 감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6>은 레쥘므(Les Hommes) 2010 F/W 컬렉션으로 메탈릭 소재의 재킷과 스키니 진을 매치하여 여성의 섹시함을 표현



<그림 21>
남버 나인(Number Nine) 2009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2>
존 갈리아노 2010 S/S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3>
D&G 2010 S/S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4>
디올 옴므 2009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5>
돌체 앤 가바나 2009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6>
레좁므 2010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7>
라프 시몬스 2010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8>
율리우스(Julius) 2009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색상이 섞인 <그림 27>의 의상은 얼핏 보면 염색 되거나 칠한 듯 보이는 소재이지만 이것은 한 판으로 짜여진 자카드 소재로써, 여성적 물결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크로스 섹슈얼을 나타내는 바삭거리면서 비치는 소재와 <그림 28>처럼 인체곡선을 드러내어 주는 니트 소재를 이제는 자연스럽게 남성복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의 의상보다는 좀더 여성스럽고, 파격적인 느낌으로 크로스 섹슈얼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5. 색상

2009년 이후 남성복 컬렉션은 전체적으로 중성적이면서 세련된 모던한 느낌의 블랙, 그레이, 화

이트의 무채색 계열이 많이 활용되어지고, 크로스 섹슈얼의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화려한 색상들은 의상의 포인트 컬러로 나타났다.

라프 시몬스의 컬렉션에서는 블랙, 그레이 컬러의 재킷과 코트에 <그림 29>처럼 소매부분을 여성적이고 신비로운 핑크, 블루, 카멜컬러를 사용하여 딱딱하게 느껴지는 수트에 화사함을 표현하였고, <그림 30>의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컬렉션에서도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 중심에 오렌지 컬러를 포인트로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어두운 블랙과 그레이, 다크 네이비, 다크 와인, 빈티지 브라운을 전체적인 컬러로 사용한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와 구찌의 컬렉션에서도 선명한 퍼플,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등의 컬러를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하여 톤이 다른 포인트 컬러들끼리 톤온톤 매치로 투톤효과를 주



<그림 29>
라프 시몬스 2009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30>
장 폴 고티에 2010 S/S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31>
보테가 베네타 2010 F/W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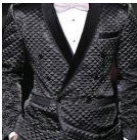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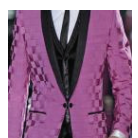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32>
구찌 2009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표 1>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서 나타난 크로스 섹슈얼 디자인 특징

분석 요소	특징	이미지		
아이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적인 레이어링 아이템 • 여성적 볼륨성을 띄는 아이템 • 상황에 따라 연출이 가능한 포멀 아이템 			
실루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트하고 슬림한 I형 실루엣 • 상·하의 폭이 자연스러운 H형 실루엣 • 남성의 바디라인을 강조한 실루엣 			
디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스, 비즈, 주름 장식 • 자수, 금속, 아이렛 장식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크와 벨벳, 키팅 소재 • 자카드, 니트, 가죽, 메탈릭 소재 • 바삭거리고 비치는 소재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 색상: 무채색 계열과 다크 네이비, 다크 와인, 빈티지 브라운 • 포인트 색상: 형광 핑크, 블루, 퍼플, 레드, 옐로우, 오렌지, 그린 			

거나, 소재 자체의 다양한 광택과 색상이 어울려져서 글래머러스한 느낌을 주고 있다<그림 31>, <그림 32>.

2009년 이후 남성복 컬렉션에서 색상은 기존의 크로스 섹슈얼을 나타내는 화려한 색상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한 부분이나 한 아이템의 포인트 색상으로 활용되어 밝고 경쾌하게 혹은 강렬하고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화려한 색상과 남성복을 대표하는 무채색의 조화는 남성복 컬렉션에서 적극 활용되어 여성과 남성의 성 경계를 무너뜨리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표 1>은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 본 2009년 이

후 남성복 컬렉션에서 나타난 크로스 섹슈얼 스타일을 디자인 분석 요소별로 정리한 것이다.

IV. 결론

2006년부터 급부상한 크로스 섹슈얼은 과거에 여성에게만 적용되었던 아름다움을 남성들에게도 표현하면서 외모뿐만 아니라 패션과 라이프스타일까지 대변하는 현상이며, 사회적으로도 예쁘게 치장하는 남성의 아름다운 외모가 강점으로 인식되

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 나타나는 여성화 경향에 대해서 호의적인 공감대가 생겼으며, 이러한 현상이 이제는 대중화되었다.

본 연구는 2009년 이후 남성복 컬렉션에서 나타난 크로스 색슈얼 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시즌의 남성복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크로스 색슈얼이 대중화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의 남성복 컬렉션에서 선정된 148개의 이미지를 아이템, 실루엣, 디테일, 소재, 색상의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크로스 색슈얼 스타일의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템에서는 남성의 전형적인 아이템인 재킷, 코트, 점퍼, 셔츠, 팬츠의 활용빈도가 높았으며, 서로 다른 소재와 색상으로 이중적인 느낌을 주는 아이템들이 나타났고, 여성적인 볼륨감이 느껴지는 니트 가디건과 스웨터 그리고 여성의 원피스를 연상케 하는 긴 티셔츠와 남성의 여성성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아이템인 스커트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연출이 가능한 플랫폼 하면서도 여성적 체인을 띄고 있는 포멀 아이템인 크롭트 재킷과 니트로 짜인 남성용 볼레로와 코르셋이 중성적인 뉘앙스와 이중적 요소를 우아하면서도 완벽하게 결합한 아이템들이 나타났다.

둘째, 실루엣에서는 몸에 피트되는 I형의 실루엣이 인체의 윤곽을 따라서 여성에게만 강조되던 신체부위를 남성라인에 부각시키면서 여성적 라인을 표현하는 실루엣으로 나타났고, 기존의 H형과 달리 적당한 여유를 지닌 재킷 또는 몸에 피트되는 상의와 상대적으로 상의보다는 폭이 넓고, 편안하게 흘러내리는 스트레이트형의 와이드 팬츠를 착용하여 여성의 부드럽고 경쾌한 실루엣이 보이고 있다.

셋째, 디테일에서는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레이스, 러플, 프릴, 비즈, 퍼프, 자수, 코샤주 장식 등이 이번 시즌의 컬렉션에서 보이고 있으며, 켈

트나 리본 디테일, 셔링을 잡은 루즈한 셔츠가 로맨틱 무드를 보여주고, 여성적인 우아함을 부각시키는 자수 장식과 금속, 비즈 장식을 포인트 장식으로 표현하였다.

넷째, 소재는 고급스러운 실크와 켈팅 소재를 벨벳과 함께 디자인한 재킷이 여성적인 드레시한 감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호피무늬의 니트와 가죽 소재의 바이커 블루중, 신세틱 소재의 재킷들이 메탈릭 스키니 진과 매치되어 여성의 섹시함을 남성복에서도 표현하였고, 자연스럽게 색상이 섞여 여성적 물결을 보이는 한 판으로 짜인 자카드 소재와 바삭거리면서 비치는 소재, 인체곡선을 드러내어 주는 니트 소재를 여성스럽고, 파격적인 느낌으로 크로스 색슈얼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다섯째, 색상은 블랙과 그레이, 화이트의 무채색 계열과 다크 네이비, 다크 와인, 빈티지 브라운을 전체적인 컬러로 사용하였으며, 형광핑크, 퍼플, 블루, 카멜컬러, 오렌지 컬러,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등의 컬러를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하여 톤이 다른 포인트 컬러들끼리 톤온톤 매치로 투톤 효과를 주거나, 소재 자체의 다양한 광택과 색상이 어울려져서 글래머러스한 느낌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2009년 이후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그동안 남성복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크롭트 재킷과 남성용 볼레로, 코르셋 등 상황에 따라 연출이 가능한 포멀 아이템들과 켈팅 소재와 메탈릭, 찢겨진 니트 소재를 사용하여 강한 남성의 이미지에 우아함과 섹시함을 보여주었고,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사용했던 화려한 색상들이 무채색 중심에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되어 남성의 세련됨을 표현하는 것이 제일 큰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성차이가 없이 각자의 성을 교차하는 패션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크로스 색슈얼 현상을 통해 미래의 남성복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남성복은 성의 경계에 엮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감성을 찾으려는 다양한 표현으로 재해석 되어 나타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형섭 (1997). 한 권으로 읽는 응, 서울: 푸른숲, p.158.
- 2) 김경인 (2006). 21세기 남성 니트웨어에서 나타난 여성화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8(4), p.382.
- 3) 이재정 (2007). 시대극 의상에 나타난 크로스 섹슈얼적 표현에 관한 분석,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4) 권지은 (2003).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나는 메트로섹슈얼 현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1.
- 5) 조은주 (2005). 대중문화에 나타난 metrosexual과 패션 이미지 특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56.
- 6) 안보은 (2005). 패션광고에 나타난 메트로섹슈얼에 관한 연구: G. Q. Korea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24.
- 7) 김경인. 앞의 논문, pp.382-390.
- 8) 이재정. 앞의 논문, pp.1-54.
- 9) 한지은, 정성혜 (2008). 영화 포스터에 나타난 남성의 크로스 섹슈얼 패션스타일에 관한 연구: 1990~2006년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8(2), pp.126-141.
- 10) 김법석, 김윤종 (2006. 1. 7). 외모만 여성스럽게 크로스 섹슈얼 뜬다,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0. 1. 7. <http://www.donga.com/>
- 11) 위의 자료.
- 12) 남성 섹슈얼리티에 눈뜨다 (2008. 2. 4). 퍼스트뷰 코리아 이슈, 자료검색일 2010. 1. 7. <http://www.fristviewkorea.com/>
- 13) ‘모든 동물은 수컷이 더 아름답다’ 예쁜 남자의 열풍은 자연스러운 현상 (2006. 2. 5). 뉴스엔, 자료검색일 2010. 4. 12. <http://www.newsen.co.kr/>
- 14) 안현주 (2006). 남성 패션의 성이미지 유형 및 표현 특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8.
- 15) 남성 뉴 버전 크로스 섹슈얼 온다 (2006. 2). 패션비즈, p.62.
- 16) 20, 30대 남성 라이프 스타일 변화 (2008. 9. 26). 네이버 정보, 자료검색일 2010. 7. 9. <http://www.naver.com/>
- 17) 이재정. 앞의 논문, p.6.
- 18) 박수준, 박길순 (2003). 남성 화장품 광고에 나타난 내용특성 및 소비가치분석, 복식, 53(8), p.54.
- 19) 안현주. 앞의 논문, p.11.
- 20) 박옥련, 이현지 (2004). 1990년대 이후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 복식, 28(2), p.177.
- 21) 박영대 (2008. 1. 25). “여성크림 바르는 남자, 크로스 스킨족”, 퍼스트뷰 코리아 뉴스 뷰-스타일, 자료검색일 2010. 1. 14. <http://www.fristviewkorea.com/>
- 22) 꽃미남 전성시대 (2007. 7). Elle, p.88.
- 23) 박찬부 (1991). 한국복식문화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2.
- 24) 박현정 (2006. 3). 여성제품에 남성모델 ‘감성파워’시장 바꾼다, 한겨레신문, 자료검색일 2010. 1. 22. <http://www.hani.co.kr/>
- 25) 김수진 (2009. 5. 6). 김범-한채영 등 광고계, 크로스 섹슈얼 ‘광풍’, 머니 투데이, 자료검색일 2010. 1. 22. <http://www.mt.co.kr/>
- 26) 채수진, 김혜연 (1999).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43(-), p.203.
- 27) 이재정. 앞의 논문, p.15.
- 28) 박화두 (2006. 1. 9). 작년 남성복 트렌드 ‘실루엣의 변화’, 어패럴뉴스, 자료검색일 2010. 1. 9. <http://www.appnews.co.kr/>
- 29) 권지은. 앞의 논문, p.29.
- 30) 김경인. 앞의 논문, p.384.
- 31) 간문자 (2007). 패션과 디자인, 서울: 신정, p.63.

A Study on Cross Sexual Styles in Contemporary Men's Wear Collections

Kim, Hae Jin · Kwak, Tai Gi[†]

Master's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Abstract

The concept of gender role was regarded as two extremes in the past because masculinity and femininity were traditionally considered as independent categories. This was a result of gender-biased education that distinctly classifies gender roles of men and women. In the 21st century, however, men express their own sensitivity and personality and even freely show their latent femininity. This is leading to people breaking away from stereotypes. In fashion, moreover, the boundaries between men's and women's clothing is gradually fading away. The freedom of gender expression makes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fashion meaningless. This concept has created a new fashion trend called "cross-sexual-style" that goes beyond limitations of gender and expresses femininity in men's clothes. It is considered cross-sexual when men are prettier than women, take care of the way they look, and express their personal style. This leads to creative distortion. A cross-sexual trend can even be spotted on the runways these days, with some fashion shows emphasizing femininity in men's wear. This study attempts to cover cross sexual styles presented in modern men's wear collections. The range of research trie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s and cross-sexual style elements in men's clothing collections since 2009. The results show that materials that were not used in men's collections in the past are used to express masculinity and elegance since 2009. In the past, brilliant colors were largely used to express men's sophistication and th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but these distinctions are disappearing and the two genders are now found to be crossing each other.

Key words: cross sexual, men's wear, collection, design